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 영 근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자아보호의 상징으로서의  
자화상 연구

-본인의 collagraph 작품을 중심으로-

2012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판화학과  
서 지 선

자아보호의 상징으로서의

자화상 연구

-본인의 collagraph 작품을 중심으로-

박 영 근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판화학과

서 지 선

# 인 준 서

서지선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본 논문은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으로 대학원 재학시절 2009년도부터 2011년 사이에 제작된 본인의 판화작품 ‘자화상(Self\_Portrait)’ 연작이 중심이 된 작품의 내용적 측면과 조형적 측면을 연구 분석한 것이다.

고도의 기술과 정보화가 표면적인 인간의 삶에 질과 편리함을 공헌한 것은 명백하지만 동시에 이들은 개인의 독특성의 퇴색을 촉진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개인들은 정형화된 목표를, 즉 자아반성과 깨달음의 기회 없이 사회의 조류적인 영향을 받아, 쫓은 현상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내적, 외적 안위에 위협을 받으면 무의식중에서도 본래 본성인 자아방어기제를 적극 발휘한다. 즉 자신의 미성숙한 자아를 방어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외면을 향해 공을 들이는 현대인들의 모습은 마치 조개껍데기가 조개의 속살을 보호하는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는 생각에서 본인의 작품은 시발되었다.

과거 많은 화가들이 인간과 자신의 내면적인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 주로 사용하였던 자화상을 통해 본인은 다양한 형태의 조개껍데기라는 소재를 통하여 본인의 내면을 투영시켜 표현 하였으며 조개껍데기는 본인뿐만 아니라 동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나타내는 상징적 매개체로서 사용되었다.

조개 표면의 거친 결 무늬들이 외부 환경적 요인들로 인한 시간의 궤적으로 읽혀져 판화의 다양한 조형방식 중 마티에르를 용이하게 표현 할 수 있는 풀라그래프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조개형태 그대로의 모습을 재현하는 것이 아닌 확대 표현하여 시각적 환기를 의도하였다. 또한 정체성을 상실한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퇴색되어 그늘진 느낌의 무채색을 도입하였다. 본인은 미묘하고 복잡한 여러 내면의 모습들이 각자

조개껍데기들의 형상만으로 표현됨을 추구하였다.

본인은 이 논문에서 상징적인 소재의 사용과 그것의 형상만으로 다양한 내면의 감정 표현에 초점을 둔 조형표현을 논하였으며 작품사진과 함께 작품설명을 하여 적극적인 이해를 유도 하였다.

# 목 차

## 논문 개요

I. 서론 .....	1
II. 본론 .....	4
1. 자아보호의 상징으로서의 자화상 .....	4
1) 현대인의 자아정체감(自我正體感)의 상실 .....	4
2) 생존을 위한 자기 보호 본능 .....	7
3) 상징적 이미지로서의 자화상 .....	9
2. 화석화된 이미지 표현 .....	15
1) 확대되어 표현된 이미지 .....	15
2) 시간의 궤적으로서의 마티에르 .....	18
3) 퇴색화된 표현으로서의 무채색 .....	21
3. 작품분석 .....	24
III. 결론 .....	40

## 참 고 도 판

## 참 고 문 헌

## ABSTRACT

## 작품 목록

- [작품 1] 서지선, self\_portrait, 210×109cm, collagraph, 2010
- [작품 2] 서지선, self\_portrait, 70×100cm, collagraph, 2010
- [작품 3] 서지선, self\_portrait, 79×109cm, collagraph, 2010
- [작품 4] 서지선, self\_portrait, 109×79cm, collagraph, 2010
- [작품 5] 서지선, self\_portrait, 140×200cm, collagraph, 2010
- [작품 6] 서지선, self\_portrait, 160×109cm, collagraph, 2010
- [작품 7] 서지선, self\_portrait, 160×109cm, collagraph, 2011
- [작품 8] 서지선, self\_portrait, 115×89cm, collagraph, 2011
- [작품 9] 서지선, self\_portrait, 89×119cm, collagraph, 2011
- [작품 10] 서지선, self\_portrait, 89×119cm, collagraph, 2011

## 도판 목록

- [도판 1] 루이즈 부르주아(Louise Bourgeois).  
<분절된 은신처, Articulated Lair>.  
채색된 철. 고무. h.335cm 설치. 1986.
- [도판 2] 쿠사마 야요이(Kusama Yayoi).  
<나르시스 정원, Narcissus Garden>.  
1500개의 거울 공 설치작업. 1966.
- [도판 3] 파블로 피카소(Pablo Picasso).  
<피카소의 올빼미, Picasso's owl >.  
실존하지 않아 크기 정보는 없고 그걸 찍은 포토그래퍼의 사진정보만  
캘리포니아에 소장하고 있음. 10.5×14.8cm. 1957.
- [도판 4] 프리다 칼로(Frida kahlo).  
<작은 사슴, The Little Deer>.  
메이소나이트판에 유채. 22.4×30cm. 1946.
- [도판 5] 루이스 부르주아(Louise Bourgeois).  
<거미, Spider>. 청동.  
326.4×756.9×706.1cm. 1996.
- [도판 6] 클래스 올덴버그(Claes Thure Oldenburg,).  
<스푼다리wa 체리, Spoonbridge and Cherry>.  
스테인리스 스틸. 알루미늄에 채색. 9×15.7×4.1m. 1988.
- [도판 7] 조지아 오키프(Georgia O'Keeffe).  
<하얀 붓꽃, White Iris>.  
캔버스에 유채. 101.6×76.2cm. 1957.
- [도판 8] 산드로 보티첼리(Sandro Botticelli).  
<비너스의 탄생, The Brith of Venus>.  
캔버스에 템페라. 172.5×278.5cm. 1485.

# I. 서론

자아성찰(自我省察, Introspection)이란 나 자신의 내면을 관찰하고 점검하는 것이기에 영어로는 Self-Examination, Self-Observation라는 표현으로 쓰이며 이것은 수십 세기를 거쳐 미술 분야를 포함하여 문학 음악 영화와 같은 대중 매체까지 중요한 소재가 되어 왔다. 인간은 비판적인 사고를 통하여 흔히 꿈이라고 불리는 이상과 희망을 가지며 주어진 일생을 꾸린다. 이상과 희망들을 열거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성취를 위하여 소단위 목표를 세우거나 우선순위를 매기거나 주어진 환경 요인에 따라 꿈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한다. 결국 한 개인의 이상과 희망은 삶의 지표가 되고 매일을 살아가는 모든 이유를 충분히 대변해준다. 그럼 개인들에게 있어서 꿈은 어디에서 출발하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개인들은 자아성찰을 통해서 이상과 희망을 갖고 삶의 방향을 정하며 스스로를 발전시키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의 개인은 과거에 비해 역동적인 사회의 흐름, 값싸고 쉬운 정보들, 구조적인 삶에 대한 질의 고양 등으로 자아성찰의 기회를 많이 잃어가고 있다. 즉 자신 내면의 가치들을 돌아보며 성찰하고 깨달음을 얻는 중요한 일들을 소홀히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인간의 본성으로써 무의식이 관여하는 자아방어기제를 통하여 잃어가는 자신의 내면을 보호하기 위해 겉모습 치장에만 치우치게 되었고 이는 극단적인 현상인 자아 상실까지 촉구 시켰다고 생각한다.

과거부터 자아 상실의 배경을 인식한 많은 작가들은 자신의 내면을 고찰하는 취지로 자화상을 통하여 내면의 자아를 형상화 하였고 본인 또한 자아를 다양한 형태의 조개껍데기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투영시켜 표현 하였다. 조개껍데기는 기능적으로는 자신의 몸을 외부로부터 분리

시킨 채 자신을 보호하는 완전한 울타리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상징적의 기능도 내포하고 있다. [도판8]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에서의 조개껍데기 역시 미의 상징으로 재현되었다. 결과적으로 본인은 조개껍데기를 유일한 소재로 하였으며 기능적인 측면과 상징적인 측면 모두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본 논문은 2009년부터 2011년 까지 본인이 대학원 재학시절 자화상(Self-Portrait)의 주제로 제작한 시리즈로 자아를 현대인과 동일시하여 본인의 이야기로만 제한하기보다 동시대를 사는 모든 이들에게서 공감을 얻을 수 있음을 의도하였다. 현대인의 내면의 가치상실을 조개껍데기의 외면을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하였고 이를 내용적인 측면과 조형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서술할 것이다.

본론의 1장에서는 본인의 작품의 내용적 근거인 현대인의 여러 외부 위협에 의한 자아성찰의 부재와 그 파생의 결과인 정체성상실과 무의식적 자아방어기제의 방식을 일련의 결과로 해석, 서술 할 것이다. 또한 자아보호를 위한 행동을 다룬 루이즈 부르주아(Louise Bourgeois), 쿠사마 야요이(Kusama Yayoi)의 작품과 자신의 현실 상황을 자화상으로 나타낸 파블로 피카소(Pablo Picasso), 프리다 칼로(Frida Kahlo)의 작품 역시 연구 분석할 것이다. 이어서 2장에서는 확대를 통해 사물을 나타낸 클레스 올덴버그(Claes Oldenburg)와 조지아 오키프(Georgia O'Keeffe)의 작품을 비교분석하여 본인의 주요소재, 즉 작고 자칫 알맹이 없는 헛껍데기 만으로 여겨 질 수 있는, 조개껍데기의 확대를 통하여 의도된 시각적 효과를 논의 할 것이다. 또한 플라그래프 기법과 니스의 물성을 이용한 유연성, 노동성, 회화성이 포함된 제판과정과 무채색을 통해 표현된 본인의 의도를 정리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자아성찰의 기회 부재에 따른 자아방어기제를 논하며 본인의 작품과 비슷한 의도를 가진 현대미술 작가들의 작품을 비교 분석하며 본인의 작품소재인 조개껍데기를 표현하는데 쓰인 시각적 조형행위와

표현방법의 타당성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 Ⅱ. 본 론

### 1. 자아보호의 상징으로서의 자화상

#### 1) 현대인의 자아정체감(自我正體感)의 상실

자아의 형성은 성격, 취향, 가치관, 능력, 관심 등이 총체적,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현실의 경험과 이상이 맞닿아 형성되는 개념이다.<sup>1)</sup> 형성된 자아정체감(自我正體感)은 유기체로서의 개인이 사회와 접하는 연결점이며, 인간은 자아정체성을 가짐으로써 사회적 위치를 가지며 다른 이들과의 의사소통을 한다. 하지만 이런 유기적 상호적의 성질 때문에 자아정체성은 삶이라는 시간 공간적 배경에서 때론 그 본질을 잃을 수도 있다.<sup>2)</sup> 명확한 자아의 형성을 위해 또 내면의 자아를 잃지 않기 위해 자아성찰의 노력이 끊임없이 요구 되는 것이다. 자아성찰이란 글자 그대로 자신을 되돌아보며 반성하는 것이다. 내면의 자신과 소통하는 과정으로서의 자아성찰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원하는 것, 잘하는 것, 희망과 이상 모두를 총괄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개인이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를 뒷받침 해주고 삶의 원동력이 되어주는 ‘꿈’ 이라고 불리우는 이상과 희망을 인간의 사고 능력인 비판적 사고를 통하여 자아성찰의 힘으로 완성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는 꿈을 이루기 위해 주어진 인생을 꾸려나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훌륭한 화가로 성장해서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

1) 곽삼근, 여성주의 교육학,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8, p.172.

2) 브리테니커 세계백과사전, 한국브리테니커회사, 1996, p.497.

나아가서 더 큰 영감을 주는 것이 꿈이 될 수도 있고 국내 기차여행을 하며 작품에 아이디어를 풍부하게 얻는 것이 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인은 개인적인 사소한 꿈들을 소단위로 세부적으로 열거하기도 하고 우선순위를 매기기도 하며 환경조건을 감안해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한다. 이 모든 것을 실현 가능하게 하고 지원하는 것을 본인에게 있어서는 자아성찰인 것이다. 또한 이상과 희망을 혹시 가지지 않았거나 잠시 길을 잃게 되었을 때 자아성찰의 기회를 통해 내면의 이야기를 들으며 비로소 본인을 다시금 찾게 되는 즉, 정체성의 확보를 염두 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본인은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을 돌아본다. 본인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고 현재, 나를 둘러싼 외적 환경에 비추어 성찰과 함께 적절한 피드백을 얻기도 한다. 나의 초심의 꿈은 무엇이었으며 왜 그런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한 노력이 얼마만큼 있었으며 이러한 초심이 어떤 경로로 오고 있었는지 생각해 보게 된다. 분명한 것은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나의 초심의 꿈은 변질이 있었고 그 원인은 자아성찰의 기회부족 또는 부재라고 생각한다.

나아가서 본인은 이 환경적 요인을 비단 본인에게만 국한시키지 않는다. 이는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당면하는 문제라고 믿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는 고도의 기술발전과 정보화로 이루어진 사회이고 능률을 최우선시 여기고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정보들이 쏟아진다. 이러한 쏟아지는 정보가 오히려 의식의 획일화를 가져오게 되는 측면이 크다. 기술의 발달은 전자기기의 발전으로 이루어 졌고, 전자기기의 발전은 우리가 손에서 떼어내지 못하는 컴퓨팅 기술을 발전 시켰다. 컴퓨터는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에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을 쏟아 냈고,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발전해야 했던 인간은 오히려 많은 양의 정보 속에서 의식의 획일화가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정보 중의 가장 좋은 내용만을 습득하고, 그것을 따르게 된 것이다.

영화 한편, 노래 한 곡을 듣더라도 정보 검색을 통하여 가장 인기 있는 것이 최고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개인의 취향, 독특성을 파괴시키고 획일화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또한 이에 맞춰 사회에서는 성공과 목적달성이 최우선시 되는 측면도 있다. 성공한 사람의 특성을 따르며 모방하고, 그와 같이 되기를 갈망하는 사회 풍토가 그 길에서 벗어나면 배척당하고 소외되어짐을 당하게 되는 행동의 획일화, 생각의 획일화를 만들어 낸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빠른 속도로 경제발전을 이룩했지만 개인의 독특성, 존엄성이 무시되고 소외되는 지경에 이른 것은 아닐까? 사회의 요구로 인해 개인들은 자아성찰의 기회를 잃고 극단적인 현상인 자아의 상실로 이어져 외부의 영향에 의하여 만들어진 껍데기로서의 자아만 존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프로이트(Sigmund Freud, 1856~1939)가 주장한 대로 자아의 무의식 영역에서는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 자아방어기제(Defense Mechanism)<sup>3)</sup>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은 무의식 수준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의식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자아방어기제는 합리화, 동일시화, 내사·내면화, 보상화 등으로 나타나는데 자신의 자아로 착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자아방어기제의 한 종류인 보상(Compensation)이 현대인들에게는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 경제적으로 부유 등을 겉으로 내보이며 긍정적인 특성만이 자신의 모든 모습인 듯 행동하게 된다. 이러한 자아방어기제의 착각으로 인하여 자아상실이 나타나게 되고 자아의 붕괴까지 나타나기도 한다.

본인은 보호의 의미를 띄고 있는 자아방어기제가 오히려 그 사람을 평가하는 척도가 되어버린 현대인들의 모습과 나약하고 보호받고 싶어 하는 현대

3) 자아를 위협받는 인간이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속이거나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여 감정적 상처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심리의식이나 행위를 말하는 정신분석 용어. 1894년 프로이트(Sigmund Freud)의 논문 <방어의 신경정신학>에서 최초로 기술되었다. 자아방어기제에는 억압, 반동형성, 투사, 치환, 합리화, 승화, 퇴행, 내사·내면화, 동일시, 보상, 의식화, 무효화, 고착, 전환 등이 있다.

인들을 외부로부터 방어해 주는 공간으로서의 이미지를 조개껍데기로 나타내었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시대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동시대의 현대인들도 자신의 자아를 찾고 자아정체감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 2) 생존을 위한 자기 보호 본능

자기 자신을 외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무의식의 영역으로부터 나타나는 자아방어기제는 여러 작가들에게서도 자신들만의 조형적인 언어로 나타나고 표현되어 지고 있다.



[도판 1]

루이즈 부르주아(Louise Bourgeois)  
 <분절된 은신처, Articulated Lair>.  
 채색된 철. 고무. h.335cm 설치. 1986.

가족관계에 주목하여 ‘집’이라는 소재를 통하여 상처받기 쉬운 여성을 형상화 시킨 것이다 .4)

루이즈 부르주아(Louise Bourgeois, 1911~2010)의 [도판 1]은 금속 패널 벽체를 여러 장 조합하여 하나의 밀폐된 공간을 만들었고, 벽체의 틈 사이로 은은하게 비춰 들어오는 빛을 통해 안과 밖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켰다. 이러한 공간의 작은 쪽문을 통하여 내부에서 밖의 위협 혹은 공포로부터 안전한 공간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는 유년시절 아버지의 외도로 인해 받은 기억과 고통, 그리고

이 작품에서 벽체에 매달려 있는 검은 고무의 물체들은 광택이 없고 부드러운 표면과 유선형의 형태로 되어 있으며 <분절된 은신처>에 들어간 관객은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과 함께 벽체 사이로 스며드는 푸른빛과 검은 벽면은 따뜻하고 포근한 등지나 동굴의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처럼 루이즈 부르주아의 작품에서 나타난 집이라는 공간은 안식 받는 공간으로 나타난다. 이렇듯 그녀에게 집의 존재는 상처를 주는 공간과 동시에 자신의 피난처,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이었을 것이다.

‘그것은 환영으로부터 시작 되었다’라고 말한 쿠사마 야요이 (Kusama



[도판 2]

쿠사마 야요이(Kusama Yayoi).  
<나르시스 정원, Narcissus Garden>.  
1500개의 거울 공 설치작업. 1966.

Yayoi 1929~ )는 유년시절 엄격한 어머니 밑에서 자랐다.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 예민한 감수성을 가진 그녀는 10살 때 식탁보의 빨간 꽃무늬가 공간 전체를 뒤덮는 환영을 보게 된 후 그러한 영상이 작품의 모티브(motive)가 되어 그녀의 작업은 물방울(Polka Dots), 무한망(Infinity Nets)이 화면에 반복적으로 가득히 나타나는 계기가 되었다.<sup>5)</sup>

[도판 2]에서는 천여 개의 은색 공들이 공간을 채우고 있다. 그 공간 역시 관람하는 누구나 들어가서 경험할 수 있는 세계이다. 공간 안에서는 은색 공에 반사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 볼 수 있다. 그 공간에서 관람자들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일체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자신이 경험 했었던 환영의 공간들을 관람

4) P. Crone and P.G. Schaesberg, Louise Brougeois, The Secret of Cell, Prestel, p.13.

5) Yayoi Kusama, 'Yayoi Kusama interview by Seung-duk kim'. Contemporary Art Series, Paris : Les Press du Reel, Janvier, 2001, p.36.

자들에게 느끼게 하도록 유도 한 것이다.

작품을 통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녀의 무의식적인 행동들은 그녀가 일상 삶에서 벗어나올 수 있는 출구이자 쏟아져 나오는 힘의 원천이었던 것이다. 그녀의 작품에 나타나는 반복, 집적의 표현방법은 계속적으로 자신의 괴로움을 중화시키기 위한 행동이며, 그녀 자신이 만드는 무의식중의 도피처인 것이다.

인간이 자신을 안전한 공간 속으로 가두어 보호하고자 하는 본성을 루이즈 부르주아와 쿠사마 야요이는 그녀들의 작품을 통해 자신을 보호하고 치료할 목적으로 형상화 했을 것이다.

본인 역시 작품을 통해 나타나는 조개껍데기는 복잡하거나 힘든 상황에 직면 하였을 때 어디론가 숨어 버리거나 피하고 싶어지는 본인의 모습뿐 아니라 하루가 다르고 빠르게 변하며 고도의 기술이 발전된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자아를 보호하려는 인간의 심리는 조개의 연한 속살이 딱딱하고 묘한 아름다움을 가진 껍데기 안으로 숨어 외부의 천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모습과 유사할 것이다.

[작품 7][작품 8][작품 9]에서 본인은 조개껍질의 일부분만을 표현하여 껍질자체의 모습뿐만 아니라 현실과 떨어진 공간으로서 자신을 보호 할 수 있는 동굴, 섬과 같은 이미지로 나타내어 어딘가에 숨어버리거나 보호받고 싶어 하는 나약한 본인의 내면심리를 시각화 한 것이다.

### 3) 상징적 이미지로서의 자화상

자화상은 초상화의 하나로 화가가 자기 자신을 모델로 그린 그림을 말한다. 자화상(自畫像, Self-Portrait)이라는 용어는 라틴어의 ‘끄집어내다, 발견하다, 밝히다’라는 말에 어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이것이 발전하여 오늘날의 ‘초상화를 그리다(Portray)’라는 용어가 된 것이다. 따라서 자아라는 의미의

self와 portrait이 합쳐진 Self-Portrait(자화상)은 간단하게 ‘자기를 끄집어내다, 밝히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sup>6)</sup>

이와 같이 자화상이란 작가 자신의 걸모습을 똑같이 그릴 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시대상황과 작가의 생각 등 작가의 사상, 뜻, 정신 등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작가는 자화상을 그리며 자신의 뜻을 표출해 내고, 자신만의 독특성을 표현하는 것이다.

“화가는 평생 자기 자신만을 그린다.”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말처럼 작가는 일생 동안 자기 자신을 완벽히 표현하기를 원하면서 연구하고 형상화한다. 그러한 활동은 그저 자화상을 제작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자아성찰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본인도 자화상을 통하여 본인의 내면적인 생각과 감정을 나타내기 위하여 표현되어지는 이미지들을 연구하였다. 또한 나 자신이 속해있는 현대사회를 관찰하고 현대인의 고독과 소외를 형상화하여 표현하고자 많은 시간을 고민하고 노력하였다.

한국의 역사 속에서 개인은 오랫동안 공동체의 일부에 불과했다. ‘개인’이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근대기(17~18세기)에 실학사상이 대두되어 자아에 대한 자각이 이루어지면서이다. 자화상이 나타난 것도 이러한 의식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왕실에 의해 주문제작 된 초상화가 대부분이었고 자화상을 그리기 위해서는 ‘자신’이라는 인물이 그려져 보존될 만한 자부심과 사회적 위치가 보장되어야만 했다. 조선조까지의 자화상의 수가 적은 이유는 직업 화공들의 경우 지극히 낮은 신분이었기에 자신을 존중하는 의식이 없었기에 현재 남아있는 자화상 작품은 사대부 출신 화가 윤두서(尹斗緒)와 문인화가 강세황(姜世晃)의 것 이외에는 드물게 전해지고 있다. 동양에서는 “초상화에서 얼굴을 묘사하는 것은 곧 그 사람의 정신을 묘사하는 것”이라 하여 이를 전신사조(傳神寫照)라 하였다. 이렇듯 초상화, 특히 자화상에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내면이 무척 생생하게 드러나 있으

---

6) 월간미술, 세계미술용어사전, 월간미술, 1996, p.390.

며, 동시에 주체의식의 성장단계를 엿볼 수 있다.

서양에서의 본격적인 자화상의 제작은, 인간이 자율성을 가지고 하나의 표현 대상으로서 본격적으로 자리 잡은 15세기 중엽 르네상스시대에 이르러서이다. 이 시기에 자화상이 많이 제작되어진 것은 르네상스시대는 신 중심의 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에 대한 인식이 심화된 때였다. 미술은 인간의 위상을 통찰할 뿐 아니라 신과 그 피조물의 형상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재능과 가치를 지닌 학문으로 여겨졌다. 따라서 화가들은 자화상 제작을 토대로 화가로서의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고 자신의 사회적 위치에 대한 자부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게 된다.<sup>7)</sup> 화가들이 자신의 모습에 관심을 둔 이유는 자신의 실체를 알고자 하는 내면적 욕구가 있었던 것이다. 또한 넉넉지 못한 경제사정의 화가는 긴 시간 동안 모델을 화실에 앉혀두지 못하였기에 거울을 통해 무제한 관찰할 수 있는 자신이라는 모델은 그림 작업에 제격이었던 것이다. 프랑스의 화가 앙리 팡탱 라투르(Henri Fantin-Latour, 1836~1904)는 “이 모델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으며 모든 이점을 제공한 다. 이 모델은 정확하고, 화가의 말을 잘 따르며, 그림을 그리기 전부터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sup>8)</sup>라고 하였다.

20세기에 들어오면서 회화는 사실주의에 대한 반발로 형태와 색채를 새로운 각도에서 재해석하기 시작하였다. 자화상 표현 양식에서도 자신의 뚜렷한 주관과 독특한 개성이 더욱 드러나면서 상징적인 매개체를 그려 넣기도 했다. 화가들은 자신들의 이미지를 극대화 시키거나 상징물을 이용하거나 극적인 상황 연출을 하여 간접적이지만 강렬하게 자신을 표현 하였다. 그들은 현실 속에서 자신의 자아를 의식하고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파블로 피카소(Pablo Picasso, 1881~1973)의 [도판 3]<sup>9)</sup>은 그가 그리다 만

7) 조선미, 화가와 자화상, 예경, 1995, p.83.

8) Alexander Sturgis, 주제로 보는 명화의 세계, 마로니에북스, 2007, p.229.

9) 실존하지 않아 크기 정보는 없고 그 작품 찍은 포토그래퍼의 사진정보만 캘리포니아에 소장하고 있음. 1957.

올빼미 드로잉의 눈 부분에 두 개의 구멍을 내고, 자신의 자신 위에 올빼미 드로잉을 장난스럽게 겹쳐 놓았다. 아마도 그가 올빼미에게 어떠한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카소의 눈은 바로 올빼미의 눈, 초연한 듯 보이지만 실재는 날카롭고 욕망에 이끌거리는 눈과 똑같은 것이다.



[도판 3]  
파블로 피카소(Pablo Picasso).  
<피카소의 올빼미, Passo's owl>.  
10.5x14.8cm. 1957.



[도판 4]  
프리다 칼로(Frida kahlo)  
<작은 사슴, The Little Deer>.  
메이소나이트판에 유채. 22.4x30cm. 1946.

프리다 칼로 (Frida Kahlo, 1907~1954)는 18세 때 사고를 당해 다리, 자궁을 크게 다쳐 사고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자화상 그리는 것으로 표출 하였다.

[도판 4]는 직접 키우던 사슴에 자신을 비유하고 있다. 작은 사슴은 9개의 화살을 맞아 피를 흘리고 있는데 고통과 아픔의 희생양이다. 사슴 아래에는 나뭇가지가 놓여있는데 아직 젊고 어린 사슴에게 마치 곧 다가올 죽음을 암시 하고 있는 듯하다.

사람들은 프리다의 작품을 보고 초현실주의적인 작품이라고 하였지만 그녀는 자신의 그림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고 완강히 거부하였다.

루이즈 부르주아(Louise Bourgeois, 1911~2010) [도판 5]는 높이 6-7m에 달하는 대형 브론즈 작품이다. 이는 어머니와 관련한 대표적인 작품이라



[도판 5]

루이즈 부르주아(Louise Bourgeois).

<거미, Spider>.청동.

326.4x756.9x706.1cm. 1996.

하겠다. 그녀에게 있어 아버지는 언제나 상처와 억압과 고통을 주는 존재였으나, 어머니는 참을성 있는 합리적인 사람으로서 정신적인 친구였다. 이는 혐오스러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미의 모습과 다르게,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추억에서 제작한 것으로 거미는 실 짓는 여인으로서의 어머니에 대한 경의의 표시라 할 수 있다. 또한 이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결국 9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을 둔 작가 자신의 자화상 모습인 것이다.

이처럼 여러 화가들은 현재 그들이 처한 상황과 감정 상태를 자신만의 소재에 비유, 상징화 하여 자화상을 통해 나타낸 것처럼 본인 역시 자아정체성을 잃어가며 자아상실이 되어가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조개껍질에 비유하여 자화상제작을 하였다. 하지만 위의 작가들이 개인적인 자신의 감정으로 자화상을 제작하였다면 본인은 개인적인 자아뿐 아니라 현 시대의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여유를 잃게 된 현대인과 동일시하여 모든 이에게 공감을 얻고자 한 점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자화상을 그리려고 화가는 거울을 들여다보고 거울 속 자신도 거울 밖의 화가를 쳐다본다. 자기 자신과의 대면은 걸모습만을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투사(投射)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자신의 이상적 자아에 맞게 변형하여 그리기도 한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은, 시각적 관찰뿐 아니라 성찰이

된다. 라캉(Jacques Marie Emile Lacan, 1901~1981)의 ‘거울단계’에서는, 동작과 지각 면에서 불완전한 신체를 가진 아기가 거울 속의 아기를 이상적인 자아로 여긴다고 한다. 이처럼 인간은 성인이 되어서도 이상적 자아를 투사해 놓고 현실적 자아의 불완전함을 보상받으려 한다.<sup>10)</sup>

자화상을 통해 화가는 자신을 나타내고 누구인지를 돌아보게 되었을 것이다. 본인 역시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거울 속 자신도 거울 밖의 자신을 쳐다본다는 라캉의 말처럼 자화상이라는 주제로 작업을 해 오면서 나 자신의 자아와 내면의 모습을 뒤돌아 볼 수 있었고, 동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자아 정체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

10) 김인숙, 성찰적 시선을 통한 자화상 연구, 한국기초조형학회, 2010, p.153.

## 2. 화석화된 이미지 표현

### 1) 확대되어 표현된 이미지

본인은 상징적인 형상과 표현을 동원하여 대상을 보고 그대로 재현 하지 않고, 본인의 주관에 따라 제작하였다. 대부분의 작가들은 자신들만의 독특하고 다양한 표현양식이 있어 이미지의 형태는 작가 개인의 표현법에 따라 변형되어 재창조 된다. 이렇듯 예술에 있어 주제가 되는 내용이 작가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변형(變形,transfiguration)될 수도 있다.

작가의 주관적인 개입은 작업으로 표현 될 때 감정과 개성적인 표현법을 통하여 다양하게 변형되고 재해석 된다. 현대미술에 있어서 예술가의 역할 중 하나는 대상을 변형하고 조형적으로 재구성하여 감상자로 하여금 예상치 못했던 경험을 하게 하거나 신선한 충격을 주는 것이다. 그 중 사물을 크게 확대하는 방법이 있다.

본인은 먹고 버리는 작은 조개껍데기를 확대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전체적으로 크게 확대하는 [작품 1][작품 2][작품 3][작품 4]와 부분만을 크게 확대하여 표현한[작품 5][작품 6][작품 7][작품 8][작품 9][작품 10]으로 나눌 수 있다.

확대(擴大, enlargement)란 기준이 되는 것의 원래 크기보다 더 크게 보는 방법으로 현실을 새롭게 환기시키는데 새로운 재창조 방식으로 사용된다. 사물을 자세히 관찰하여 크게 확대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생기는 새로운 이미지를 얻어낼 수 있고 관찰에 의한 사물형태의 사실적 효과를 노린 확대 기법을 통하여 대상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징적인 의미로 작용하기도 한다. 또 형태는 확대될수록 본래의 사물의 이미지에서 해체되어 대상 자체의 이미지는 찾아보기 어려워지고 다른 공간에 존재하는 낯선 대상으로 바뀌어

간다.

클래스 올덴버그(Claes Thure Oldenburg, 1929~)는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립스틱, 햄버거, 도장, 넥타이 등의 사물을 확대하여 3차원의 공간에 제시한다.



[도판 6]

클래스 올덴버그(Claes Thure Oldenburg,).  
<스푼다리와 체리, Spoonbridge and Cherry>.  
스테인리스 스틸. 알루미늄에 채색.  
9x15.7x4.1m. 1988.

[도판 6]에서 스푼과 체리의 확대된 크기는 그것을 마주한 감상자들에게 일상적인 오브제들의 거대한 크기에서 오는 당혹감과 신선한 충격을 주게 되는데, 이것은 팝 아트 작가들의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미적인 가치가 별로 없었던 오브제들에 주의를 기울이게 만든다. 또한 스푼 손잡이의 확대에서 받게 되는 우아한 아치형에 대한 느낌과

마찬가지로 형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 주기도 한다.

조지아 오키프(Georgia O'Keeffe, 1887~1986)는 최초로 여성의 경험이나 느낌을 표현했던 선구적 여성화가로 주목을 끈다. 그녀는 작은 꽃을 커다랗게 확대하여 화면에 가득 메우는 표현방식을 주로 사용하였는데 많은 페미니즘<sup>11)</sup>화가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본인역시 그러한 표현을 추구하고 있다. 화면정면에 크게 확대하여 보이는 꽃의 내부는 보는 이로 하여금 초현실적인 느낌을 준다. 단순한 사물의 한 부분이 추상적 형상의 이미지를 주고 있는 것이다. 그녀가 확대시점을 사용하게 된 계기는 팡탱 라루트(Henri Fantin-Latour)의 정물화에서 본 작은 꽃이었다.

11) 1960년대 후반부터 여성미술가들이 종래의 예술을 남성의 시각에서 본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해 여성의 감성과 시각으로 새롭게 바라보고 실천한 예술을 말한다.



[도판 7]  
조지아 오키프 ( Georgia O'Keeffe ).  
<하얀 붓꽃, White Iris>.  
캔버스에 유채.  
101.6x76.2cm. 1957.

“꽃은 비교적 자그마하다. 모든 사람은 꽃 (꽃의 개념)을 통해 많은 연상을 한다..... 여전히 아무도 꽃을 보지 않는다. 너무 작아서 우리는 꽃을 볼 시간이 없다. 친구를 사귀는데도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다짐했다. 내가 보는 것, 꽃이 내게 의미하는 것을 그리겠다고. 하지만 나는 크게 그릴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놀라서 그것을 바라보기 위해 시간을 낼 것이다. 바쁜 뉴욕커조차도 시간을 내어 내가 꽃에서 본 것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sup>12)</sup>

아무도 보지 않는 작은 꽃을 크게 확대하여 바쁜 뉴욕커 까지도 자신의 그림을 보게 하려던 그녀의 의도가 보인다. 이것은 본인이 작고 알맹이를 빼 먹은 후 버려지는 조개껍

데기들을 크게 확대하여 그리는 의도와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미술사학자 린다 노클린(Linda Nochlin)은 오키프의 [도판 7]에 대해서 “여성성과 자연적 질서의 합일이자 보편화된 여성적 섹슈얼리티(sexuality)의 강한 은유”라고 설명하였다. 꽃을 자세히 사실적으로 묘사하면서도 그 대상을 물질적인 현실로부터 더 깊은 상징적 의미로 해방시켰다고 평가하며, 그러한 이미지는 당대 페미니즘 운동의 맥락에서 강력한 정치적 함의를 가진 투쟁의 상징이라고 설명 하였다.<sup>13)</sup>

[작품 5][작품 6][작품 7][작품 8][작품 9][작품 10]은 조개껍질의 일부분만을 확대 하여 본래 조개의 모습이 아닌 전혀 다른 형상을 나타내 보이고 있

12) Britta Benke, 강병직 역, 조지아 오키프, 마로니에북스, 2006, p.31.

13) Michel Raon, 이일 역, 새로운 예술의 탄생, 정음사, 1974, p.100.

는데 동굴, 섬, 본인의 정체성인 여성을 나타내는 등 다양한 형상들을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형상들은 본인의 나약함이자 숨어버리고 싶은 마음을 나타내기도 하며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여성인 본인 자체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속안이 텅 비어있는 조개껍데기가 본인의 크기만큼 크게 확대하여 본인이 그 안으로 들어가 숨어 보호 받고 싶기도 한 마음을 나타내기도 하였고 조개의 부분 확대로 인해 재현 되어지는 형상이 아닌 다른 형상을 나타내 본인의 보호받고자 하는 마음과 여성적인 성향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본인의 작업인 조개껍질의 확대는 그것을 형태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닌 자아의 내면세계를 향한 시선이며 대상의 실제 이외에 또 다른 본질에 다가가고자 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 관람자로 하여금 조개 자체의 모습보다는 또 다른 시각적 환기를 유도하려 하는 의도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 2) 시간의 궤적으로서의 마티에르

매해 여름이 되면 꼭 한번쯤은 바다를 찾게 된다. 바다에 가면 수많은 조개껍데기 들을 만날 수 있다. 조개껍데기들은 크기도 모양도 모두 다를 뿐더러, 반짝반짝 빛을 내는 것도 있어 마치 숨은 보물찾기를 하듯 몇 시간을 조개 찾기를 하며 마음에 드는 조개들을 주워 오기도 하며,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조개 구이 집 또는 음식점에서 뜻하지 않게 조개를 보게 되면 그것들을 가지고 오는 것에서 작업은 시작된다.

조개를 보면 표면에서 조수간만, 바람, 온도 등 환경적 요인들로 인해 흔적과 마치 나무의 나이테처럼 드러나는 무늬결등이 시간의 궤적으로 읽혀졌다. 이러한 흔적의 결과로써 형성된 마티에르의 시각적인 효과에 주목하게 되었고 이를 표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형적 실험을 거치게 되었다.

본인의 작업은 주로 콜라그래프(collagraph) 기법으로 제작하였는데, 판 위의 표면에 마티에르(matiere)를 주고, 날카로운 송곳이나 니들로 긁어 홈이 파이게 하여 튀어나온 부분은 닦아내고 그 사이 홈이 들어간 부분에는 잉크를 채워 넣어 찍어내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콜라그래프는 오목판화(intaglio)기법과 볼록판화(relief) 기법을 함께 사용할 수 있고, 판을 쉽게 여러 부분으로 잘라 낼 수 있으며, 얼마든지 다양한 색채를 구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콜라그래프가 갖는 유연성은 콜라그래프에 사용되는 재료의 느낌과 형태가 다양하다는 점인데, 여러 가지 재료들을 사용하여 판을 제작할 수 있다는 무한한 가능성으로 인한 자유로움이야말로 콜라그래프 최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전통적인 판화 기법들과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작가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sup>14)</sup>

나의 작업의 소재인 조개껍데기는 거친 표면과 굴곡이 심하며, 빗살무늬 등이 있다. 이러한 조개껍데기의 특징을 콜라그래프의 기법을 사용하여 표현 하였다. 날카로운 니들, 칼, 바렌 등으로 점을 찍거나 예리하게 긁기, 파내기, 얇게 찢기, 판위에 붙이기 등이 용이하게 작업하였다.

마음에 드는 조개를 선택 후 여러 방향으로 배치하고 확대 등을 해 가며 사진을 찍는다. 사진을 찍은 후 이미지를 선택 후 캔트지에 전체적인 화면 구성을 해 본다.

화면구성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판 작업을 시작하게 된다. 판 작업의 시작은 하드보드 위에 니스를 여러 번 덧칠해서 판을 매끄럽게 코팅 하는 데에 있다. 니스를 칠하면 니들로 더 예민하게 긁혀 더욱 섬세한 표현을 할 수 있지만, 본인은 조개껍질 질의 거친 표현을 주기 위해서는 모델링 페이스트를 붓에 묻혀 질감표현을 해 주는데 코팅을 하지 않으면 잉킹(inking) 작업 후

---

14) Clare Romano · John Ross, 심현삼 역, 콜라그래프와 판화 그 예술과 제작기법의 모든 것, 조형사, 1993, p.9.

에 판이 구겨지고 손상이 된다. 껍질의 거친 표현을 위해 모델링 페이스트를 쓰는 나의 작업에서는 니스로 코팅 하는 것이 중요한 밑 작업이다.

코팅된 판위에 이미지를 직접 그린 후 조개껍질의 마티에르를 주기 위해 큰 붓을 이용해 모델링 페이스트로 거칠게 밀칠을 한다. 이 작업은 캔버스에 물감을 칠했을 때와 매우 유사한 직접적성과 질감을 얻을 수 있다. 모델링 페이스트가 마르면 마티에르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 번 더 얇게 코팅을 한다. 니스로 코팅할 때 여름인 경우에는 하루, 이틀이면 건조 되지만 겨울인 경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코팅된 판 위에 얇은 니들로 여러 번 긁어내고, 어두운 부분은 판을 찢어 내고 다시 긁어내기를 반복한 후 마지막으로 얇게 코팅을 한 후 완전히 건조시킨다.

바탕의 여백부분은 니스의 물성을 이용하여 추상표현주의 대표화가인 잭슨 폴락(Jackson Pollock, 1921~1956)이 사용한 드리핑(Dripping)기법을 나타내었다. 코팅된 판 위에 니스를 조금씩 방울지게 떨어트리거나 많은 양을 부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뒤엉켜 우연적으로 나오는 이미지들을 그대로 오랜 시간 동안 건조 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 중 본인의 순간적인 감정의 변화와 움직임에 따라 화면은 바뀌게 된다. 예술에서 재료는 감정의 전달자이다. 재료와의 소통을 통해서 감정이 발현되며 통찰 또한 이루어진다.<sup>15)</sup> 판화작업은 프레스기 크기에 따라 찍혀 나오는 사이즈의 제약점이 있지만, 찍힌 이미지들을 이어 붙여 연장됨을 이용한다면 무한히 확대 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제판 과정에서 이를 유의하여 판의 크기를 조금 더 크게 하여 편을 맞추는 일이 중요 하다. 모든 과정의 잉킹 과정에서는 힘의 강약 차이를 주어 잉크의 자연스러운 번짐과 함께 톤의 다양한 변화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힘의 강약을 줄 때에 본인의 강한 노동성이 접해지면서 본인 자신의 자아에 대한 통찰을 하게 되며 이것은 무의식중의 감정표현과 본인 스스로를 바라보게 된다.

15) Lucia Capachione, 오연주 역, 감정치유, Project409, 2008, p.81.

가스통 바슐라르(Gaston Bachelard)는 “노동에 의해 인간은 존재 이상의 생명으로서의 가치를 표현하고, 모든 위대한 작품은 상상력과 의지의 결합으로서 노동의 역사, 물질에 대한 투쟁의 역사를 내포한다. 화가는 노동자이며, 이 노동자는 기호의 영역을 넘어서 의미하는 의지와 결합한다. 화가는 모방한다는 의미에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하는 것이다.”<sup>16)</sup>라고 하였다.

반복적이고 오랜 시간을 들여 작업을 하게 되는데 판을 코팅 할 때에는 조심스러우며, 마티에르를 표현 할 때에는 과감하며 거칠고, 니들로 표현 할 때에는 섬세하게 작업을 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과정들이 나의 감정 변화로 이어져 표현된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들을 통해 나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고 나의 자아의 통찰을 이루게 된다.

### 3) 퇴색화된 표현으로서의 무채색

색에 대한 반응은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공통된 성향을 갖고 있지만, 개인의 환경과 경험의 축적으로 색은 정서의 차이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보여 진다. 동일한 색의 사용에 있어서도 다양한 표현만큼 의미 또한 다중적 이고 감정을 나타낼 수 있어서 작가들 에게는 감성이나 사상을 표출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본인작업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색은 모노톤을 이루고 있다. 그 중에서 주로 무채색인 회색을 사용하고 있는데 서양에서의 무채색은 모든 색의 시작이라는 사고방식에서 출발하지만, 동양적인 사고에서의 무채색은 언젠가 색이 바라고 없어져 대상의 본질에 이르는 귀착점이라 생각한다. 무채색은 자신을 드러내는 색이 아니라 주변을 품어내는 색으로 조합된 색의 기운을 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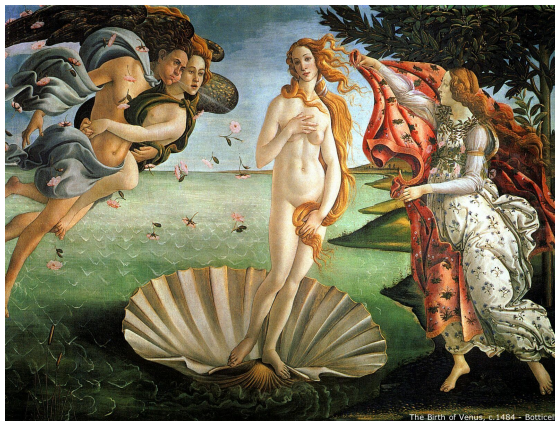
16) Gaston Bachelard, 이라김 역, 꿈꿀 권리, 열화당, 1980, p.27.

보이게 하는 역할을 한다.

무채색 중에서도 회색은 흰색과 검정색 사이에 존재하는 색으로 순수한 검정색과 흰색 사이에는 밝고 어두움에 따라 수없이 많은 명도의 회색이 연속적인 단계를 형성하고 있다.<sup>17)</sup>

이처럼 회색은 명도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으며 다의적 느낌을 준다. 회색은 금속의 대표적인 색으로 기계문명, 산업의 발전을 나타내는 발전의 미래도시적인 색상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미국에서는 실업률이 높은 지역을 ‘회색지역’이라고 하듯이 근심걱정, 암울한 심리의 색으로도 나타난다. 불에 타서 없어져 가루만 남게 되는 재의 빛깔이나, 오랜 시간이 지나 본래의 색채가 없어지거나 바라고 그늘져 있는 느낌을 주기도 한다.

자화상(‘self-portrait’) 연작으로 나타나 본인이 사용하는 소재인 조개는 미의 상징으로 나타났다. 그리스 신화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한 보티첼리



(Sandro Botticelli, 1445~1510)의 <비너스의 탄생>[도판 8]에서는 사랑과 미의 여신인 비너스가 푸른 바다 거품으로부터 태어나 조개에서 탄생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조개껍데기가 미의 상징으로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예로부터 전해오는 풍습 가운데 하나로 딸을 시집보낼 때 가리비 껍데기를 싸주기도 하며 중국에서 가리비를 ‘양귀비의 혀’로 비유하기도 한다. 이는 동서양을

[도판 8]

산드로 보티첼리(Sandro Botticelli).

<비너스의 탄생, The Brith of Venus>.

캔버스에 템페라. 172.5x278.5cm. 1485.

막론하고 조개껍데기는 오래 전부터 미의 상징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

17) 오희선, 김숙희, 재미있는 색 이야기, 교학사, 2001, p.78

다.

이처럼 미의 상징인 조개껍데기를 본인은 화려하거나 아름다운 색채를 사용하지 않고 회색이 주를 이루는 무채색을 사용하였다. 현대사회는 급격한 경제의 발전과 물질 만능주의로 인해 수많은 알록달록한 색상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회 속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정체성의 손상과 의식의 획일화, 존엄성이 무시 되면서 내면은 점점 더 연약해 지고 고독해 졌다. 이는 본래의 색이 바라고 퇴색화되어 회색의 재 빛의 무채색을 나타내는 것처럼 현대인의 외면적 모습은 화려하지만 내면적 정체성은 상실되어 연약하고 고독한 내면 심리를 빗대어 표현 한 것이다.

### 3. 작품분석



[작품 1] self\_portrait, 210x109cm, collagraph, 2010

[작품 1]

본인은 발전되고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며 정체성을 잃어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시각화 한 작품이다. 현대인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 살아남고 적응하기 위해 자신을 강하게 보이기를 원하며 외적인 모습의 치장에 몰두하지만 자신의 자아는 돌아보지 않아 정체성의 혼란, 자아상실을 초래하기도 한다.

현대사회는 급속한 경제발전과 고도의 기술발전으로 매우 편리하며 발전된 사회이지만 현대인들은 사회에 적응하기 바빠지면서 점점 더 외롭고 고독해 내면의 자아를 돌아볼 기회가 없어지게 되었다.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사회를 표현하기 위해서 배경의 물성들은 수평적으로 나타나며 푸른색이 감도는 채도가 낮고 흐린 무채색으로 나타내 공허하며 외로운 느낌이 감돌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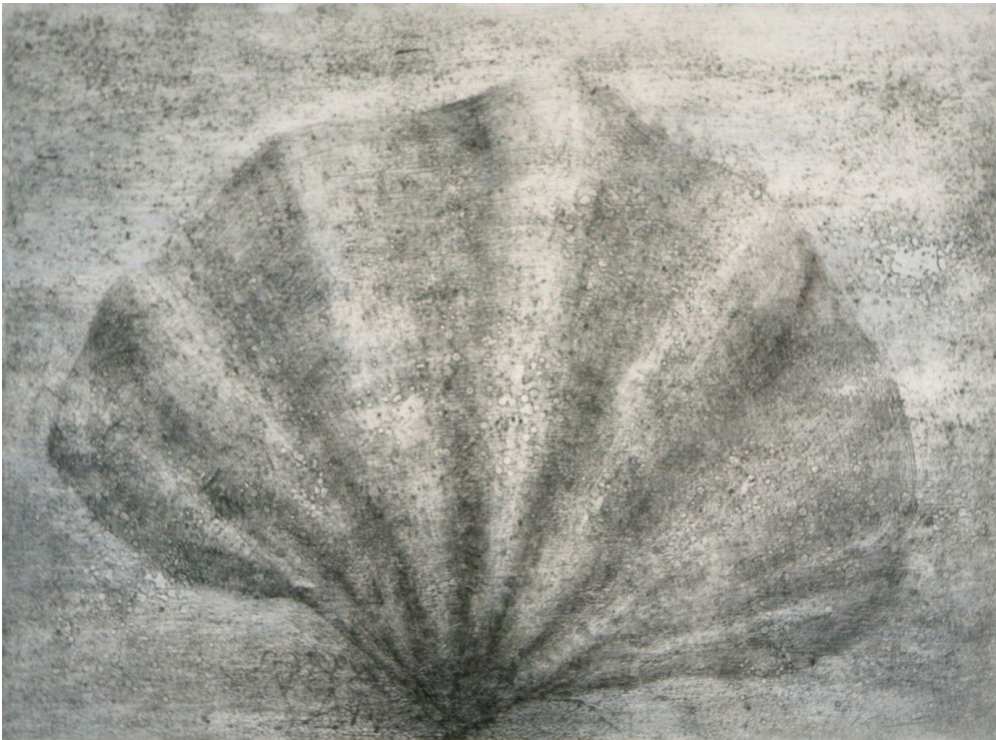
작품에 나타난 커다란 조개껍질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의인화 하여 나타내고 있다. 발전된 사회 속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자신의 내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하게 보이려 하는 모습은 조개껍질이 단단한 껍질로 내부의 알맹이를 보호하는 모습과 유사하다. 껍질은 커다란 붓으로 거친 마티에르를 주어 더욱 단단해 보이려고 하였고 나선형으로 길게 감싸고 있는 선들은 외부의 회오리치는 강한 풍파를 감아 막아내고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준다. 조개껍질의 윗부분의 구멍은 검게 나타내어 마치 사람의 머리와 같은 느낌을 주고자 하였다. 구멍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검정과 함께 주변의 작은 물성들과 묘사로 인하여 리듬감 있는 표현을 하여 시선을 위쪽으로 집중시키고자 하였다. 배경의 전체적인 수평적인 분위기와는 반대로 조개껍질은 화면의 중앙에 수직으로 나타나 긴장감을 자아내 정체성의 상실과 함께 외롭고 고독한 현대인이 자아완성과 함께 우뚝 서기를 바라는 본인의 내면심리를 반영하였다.



[작품 2] self\_portrait, 70x100cm, collagraph, 2010

[작품 2]

여린 속살의 조개는 껍데기가 없으면 존재 할 수 없다. 껍데기는 그 속살의 알맹이를 보호해 주는 존재 일 뿐만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절대적인 존재이다. 이 작품은 배경 물성이 없는 하얀 여백처리로 인해 공간과 동떨어져 외부와 단절되어 있는 껍데기 존재 자체의 표현에 집중 하였다. 표면의 요철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판 위에 마티에르를 칠 때에는 두꺼운 붓으로 강한 붓질을 하였고 얇고 날카로운 드라이 포인트를 이용하여 선긋기의 반복으로 나타내었다. 본인은 붓질을 할 때에는 과감하고 거친 행동으로 인한 감정표출을 할 수 있었으며 얇은 니들로 선을 그어 나갈 때에는 섬세하고 조심스러우며 절제된 감정표현에 집중하였다. 펠트조각, 스퀴지 등으로 판의 흠에 잉크가 골고루 스며들도록 나선형으로 돌려 눌러준 후 신문지, 갱지등 흡수력이 좋은 종지와 면망사로 잉크를 걷어내는 과정에서 힘의 강약을 조절하면 다양한 톤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잉킹(inking) 과정에서 다양한 톤을 나타내기 위해서 잉크는 조금 더 묽게 하여 잉킹하였다. 잉크가 묽어지면 판의 흠에 잉크가 용이하게 스며들 뿐만 아니라 잉크를 걷어내는 과정에서도 번짐의 농도차이가 많아져 다양한 톤을 나타낼 수 있다. 껍데기 자체 표현에서도 위쪽은 잉크를 더욱 많이 걷어내어 톤의 변화와 덩어리감을 주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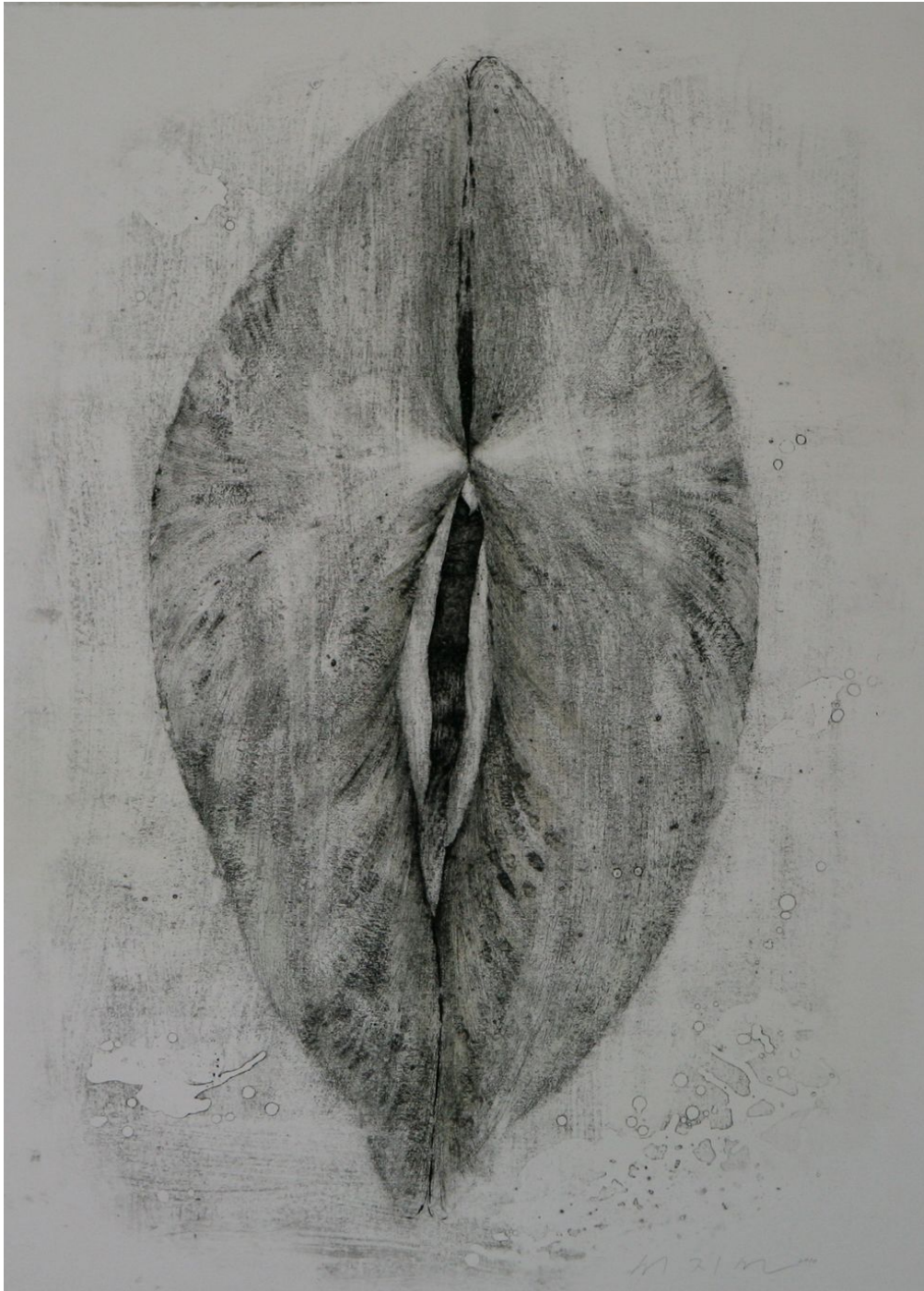


[작품 3] self\_portrait, 79x109cm, collagraph, 2010

[작품 3]

성공한 사람의 특성을 따르며 모방하고, 그와 같이 되기를 갈망하는 사회 풍토 속에서 현대인들은 개인의 독특성, 존엄성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다. 개인의 정체성을 잃고 사회 속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시각화 하고자 한 것이다. 물성표현이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배경과 외곽의 뚜렷한 구분 없이 나타나는 조개껍데기는 무채색으로 은은하게 표현되고 있다.

다른 작품들과는 반대로 배경작업을 먼저 시작하여 나타내었다. 수평의 붓 자국으로 코팅한 판 위위 적은양의 니스를 여러 방향으로 뿌려서 작은 물방울들이 화면에 전체적으로 나타난다. 오랜 건조 후 날카로운 니들로 섬세한 선들의 반복과 중첩으로 톤을 나타내며 조개의 형상을 표현하였다. 배경과 분리되지 않고 불완전하게 나타나는 조개껍질은 정체성을 상실한 모습을 나타내고자 하였으며 조개의 하단에 물풀과 이끼들이 묻어 오랜 시간이 지나 퇴색되어진 느낌을 더욱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화면에 투명한 막이 생긴 듯이 전체를 차지하는 무채색은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사회와 내면적 정체성이 상실되어 사회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 4] self\_portrait, 109x79cm, collagraph, 2010

[작품 4]

실제이미지 이외에 다른 이미지로 연상되거나 보여 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조개껍질을 세로로 세워 표현하였다. 화면의 중앙에 배치하여 표현된 조개껍질은 조개의 형상이외에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여성인 본인자아의 모습을 의미하기도 한다. 조개껍질의 질감은 자유로운 붓질의 곡선위에 얇은 드라이포인트의 선묘를 통해 나타내었다. 배경에는 니스의 물성표현들을 희미하게 표현하여 추상회화에서 나타나는 우연의 자유로운 형상들을 나타내고 있다. 화면중앙의 강한 블랙톤의 어두움은 관람자의 시선을 중앙으로 집중시키며 다른 이미지를 연상할 여지를 주고자 하였다. 갈색빛이 포함된 무채색은 여리고 따뜻한 내면의 자아를 표현하기 위함이었다. 이 작품을 계기로 실제형상 이외에 다른 형상으로 보여 질 수 있는 이미지의 다양화를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작품 5] self\_portrait, 140x200cm, collagraph, 2010



[작품 6] self\_portrait, 160x109cm, collagraph, 2010

[작품 5]는 조개껍질의 일부분만을 확대하여 화면 가득히 표현하여 나타내었다. “직관이란 사물의 내적 본질을 지적으로 느끼는 방법으로서 사물의 본원적이고 설명할 수 없는 무엇을 포착하게 한다. 만일 사물의 실재를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상대적인 개념이 아닌 절대적 개념으로, 사물의 내부에서 어떤 통역이나 상징 없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형이상학 그 자체이다”프랑스 철학자 앙리 베르그송(1859~1941)의 말처럼 조개껍질표면의 유연하고 반복적인 패턴의 결 무늬들을 자유로운 붓질을 통해 커다란 곡선으로 표현함으로써 관람자가 다른 이미지를 연상할 수 있도록 작업하였다. 전지 4장을 붙여서 만든 커다란 화면에 나타나는 소용돌이치는 곡선들은 거대한 느낌을 자아내어 발전되고 복잡한 현대사회와 고독과 외로움에 빠진 현대인들의 심리상태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작품 6]은 [작품 4]와 연결된 작품으로 이미지의 부분 확대를 이용하여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여성의 심리를 나타내고자 한 것이다. 조개껍질이 아닌 다른 이미지로 재 표현하고자 이미지의 외곽부분을 모두 의도적으로 자르고 중앙부분을 확대하여 표현하였다. 짝 아물어져 있는 조개껍질의 외곽부분의 삭제를 통해서 화면의 중앙에 나타나는 어두움은 여성내면의 고독함과 쓸쓸함을 시각화하고자 하였으며 화면 아래쪽의 어두운 톤으로 인한 무게감을 표현하여 시선을 집중시키고자 하였다. 존엄성이 무시되면서 나타나는 고독감을 퇴색화되어버린 색감으로 나타내고자 검정에 가까운 무채색을 도입하여 내면심리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 7] self\_portrait, 160x109cm, collagraph, 2011



[작품 8] self\_portrait, 115x89cm, collagraph, 2011



[작품 9] self\_portrait, 89x119cm, collagraph, 2011



[작품 10] self\_portrait, 89x119cm, collagraph, 2011

[작품 7][작품 8][작품 9]

매일 바쁜 사회 속에 살아가는 인간은 누구나 보호받고 쉬고자 하는 바람이 있다. 이러한 현대인, 본인의 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전체의 이미지가 아닌 한 부분만을 확대하여 조개껍질이 아닌, 다른 형상을 나타나게 유도하였다.[작품 7][작품 8]은 깊숙한 구멍이 있어 몸을 숨길 수 있고 보호 받을 수 있는 있는 포근한 공간인 동굴을 연상 시키고 [작품 9]는 현실을 떠나서 쉬고 싶은 공간, 어딘가에는 있을 법한 외딴섬을 연상하며 작업 하였다. 하지만 이곳들은 실제로 존재 하는 공간은 아니다. 배경에 나타나는 니스방울들의 물성은 희미하게 나타내 초현실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려고 유도하였으며 편안하고 안락한 느낌을 자아내기 위해 갈색과 푸른빛이 도는 무채색을 사용하였다. 화면의 위쪽은 여백을 많이 주고 아래쪽을 무겁게 하여 안정되고 편안한 구도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작품 10]은 조개껍질의 내부를 보여주고 있는 작품으로 딱딱하고 강해보이며 화려한모습의 껍질안의 중요한 알맹이는 빠져나가 비어있는 모습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개인의 정체성상실 으로 나타내며 겉과 내면의 이중적인 모습을 시각화 하고자 하였다. 화면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은 의도적으로 잘라 없애 내부의 텅 빈 모습을 강조하고자 하였으며 껍질의 외곽부분은 큰 붓을 사용하여 거칠고 강하게, 껍질의 내부공간은 니스의 물성과 얇은 부드러운 선의 묘사로 질감표현 또한 시각적 대조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 Ⅲ. 결 론

모순적이게도 구조적 삶의 질 향상과 편리 도모에 공헌한 고도 기술력과 정보화는 현대인에게 자아상실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사회의 빠른 변화에 적응하거나 적절히 대처하기 위하여 현대인들은 정작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여유를 잃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자아성찰과 자기발전의 부재는 인간 삶의 질이 고양된 실재라고 할 수 없다. 현대인들은 정체성을 잃는 단계에 이르렀지만 본능적으로 자기방어의 목적으로 외향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며 외부에 의해 성립된 목표가 실제 목표인 듯 스스로 속기도 한다.

본인은 현대인들의 자아정체감 상실과 함께 자아를 보호하고자 하는 인간의 현상을 자화상을 통하여 모색함을 의도했으며, 이는 외면의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내면적으로는 보호받고자 하는 나약한 조개를 연상케 했다. 따라서 미묘하고 복잡한 인간의 내면심리를 조개껍데기들의 형상을 통해 절제된 무채색을 사용하여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본인작품의 주요 의도다.

덧붙여 본 논문은 자아를 다룬 많은 전래작가들의 작품을 본인의 작품과 비교분석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그 결과 본인의 작품들은 자신의 자아만을 표현 하는데 그치지 않고 동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군중의 한 일원으로써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현상에 대한 고민을 담고자 하였다. 조형적 측면으로는 확대를 통해 시각적 환기를 표현한 작가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본인이 자화상의 소재로 조개껍데기를 사용한 의미와 의도를 정리 할 수 있었고 부분 확대를 통한 이미지들은 더욱 새롭게 재창조 될 수 있겠다는 판단도 얻었다.

플라그래프 제판 과정중 시간의 축적을 통해 다양한 마티에르 표현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도 정리 해 보았다. 본인 작업의 특징 중 하나인 거친 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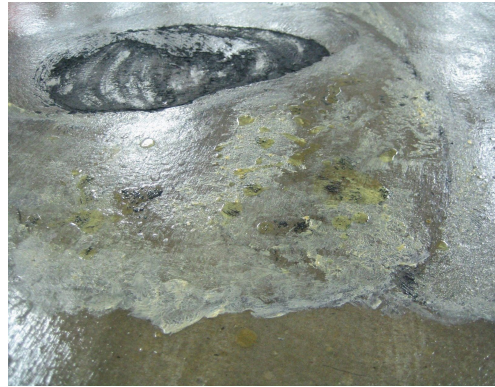
자국과, 얇은 선, 우연적 효과들로 나오는 니스의 물성표현은 다양하게 나타나는 인간내면의 여러 감정들을 표출하는 방법으로 쓰였으며 미세한 감정표현을 더욱 효과적으로 재현하는 연구는 미래 작품을 위한 주요 과제가 될 것이다.

본 논문제작은 본인작품의 내용과 조형적 특성을 심도 있게 분석 할 수 있었던 뜻 깊은 기회였고 다양한 연구와 통찰력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해 주었다. 앞으로 본인과 현대인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 소재를 찾고 조형적인 모색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의 제시와 함께 발전적인 작품세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 참고도판



[도판 1] 다양한 마티에르 표현을 위한 도구



[도판 2] 콜라그래프 판의 다양한 물성효과



[도판 3] 제작된 콜라그래프 판(부분)

쉽게 구할 수 있는 하드보드위에 코팅하여 붓으로 표현하기, 예리하게 긁기, 찢기, 파내기, 얇게 찢기, 판 자르기 등의 자유로운 효과가 용이하다.

## 참고문헌

### 국내서

- 곽삼근. (2008). 여성주의 교육학.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김숙희, 오희선. (2001). 재미있는 색 이야기. 교학사.
- 김인숙. (2010). 성찰적 시선을 통한 자화상 연구. 한국기초조형학회.
- 월간미술취음. (1996). 세계미술용어사전. 월간미술.
- 조선미. (1995). 화가와 자화상. 예경.
- 한국브리태니커회사취음.(1996). 브리태니커 세계백과사전. 한국브리태니커회사.

### 번역서

- Alexander Sturgis. (2007). 주제로 보는 명화의 세계. 마로니에북스.
- Britta Benke. (2006). 조지아 오키프. (강병직, 역). 마로니에북스.
- Clare Romano, John Ross. (1993). 콜라그라프와 판화 그 예술과 제작기법의 모든 것.(심현삼, 역). 조형사.
- Gaston Bachelard. (1980). 꿈꿀 권리. (이라김, 역). 열화당.
- Lucia Capachione. (2008). 감정치유. (오연주, 역). Project 409.
- Michel Raon. (1974). 새로운 예술의 탄생. (이일, 역). 정음사.

### 국외저서

- Crone, P. and P. G. Schaesberg. Louise Brougeois. The Secret of the Cell. Prestel.
- Yayoi Kusama. (2001). 'Yayoi Kusama interview by Seung-duk kim'. Contemporary Art Series. Paris : Les Press du Reel. Janvier.

# ABSTRACT

## A Study of Self Portrait as a Mechanism of Self - Defence Using a Metaphorical Way -focused on my collagraph works-

Seo, Ji Sun  
Department of Printmak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an's University

As a thesis of the Degree of Master of Fine Arts, this study which is based on the main idea, self-portrait, aims to analyze the contents and forms of the series of prints that I created between 2009 and 2011.

There is no doubt that highly developed technology and information-based society have contributed in developing structurally quality of life and the convenient ways where people live. However at the same time they facilitate individuals to lose their intrinsic values and the public is to pursue stereotyped goals while individuals are even deprived of an opportunity to establish their critical goals and reflect on

them.

However individuals spontaneously activate self-defense mechanism when they are threatened by intrinsic or extrinsic danger. In other word, my onset of idea was derived from what to defend their premature inner values human make an effort toward only their appearance through various ways is exactly like the way a shell of clam protects it self.

I adopted self-portrait technique which many of former artists used so as to reflect on and depict human being and their inner values and also adopted shells as main material to metaphorically express myself as a member in this modern generation.

A collagraph technique which can effectively expresses matiere and a way magnifying shells rather than a describing their actual size to arouse visual impact are introduced. In addition to display the loss of identity that individuals experience today fade and shaded achromatic colour was adopted. I aimed that via only figuration of sea shell the delicate and complex intrinsic values which individuals have would be highly displayed.

I discussed the use of metaphorical material and the expression methods which are selected to imply diverse intrinsic values of human by only the formation of the metaphorical material as well as aimed to deriver active understanding from readers by displaying together the explanation and the relevant picture of my work.